

홈 > 뉴스 > 뉴스룸 > 교육/문화

제주·런던 관객, 같은 공연 동시에 즐긴다

문화공간 양웨더리포트·사운드캠프, 4일 네트워크사운드 퍼포먼스 개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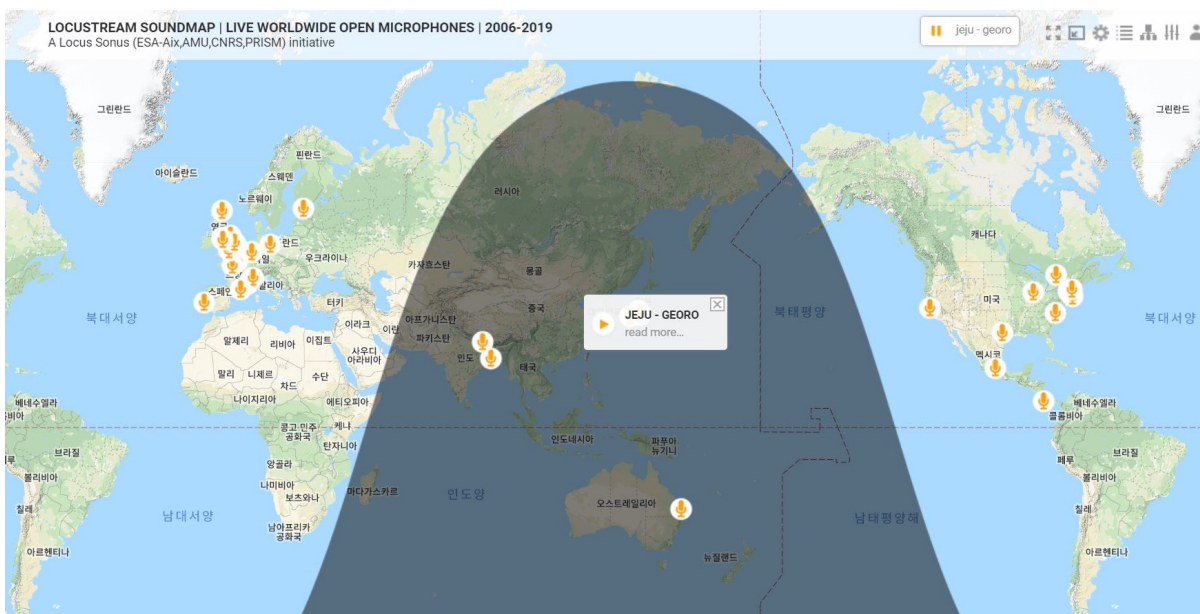
즉흥 사운드 공연 '협업'... '비주얼 작품' 동시 상영

2019년 05월 01일 (수) 16:55:35

임청하 기자 ✉ purenmul@jejupress.co.kr



▲ 문화공간 양에 설치된 스트리머.



▲ 로커스 소너스 소리지도(Locus Sonus Soundmap).

[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와 영국 런던을 잇는 사운드 공연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문화공간 양(관장 김범진)과 웨더리포트(대표 김지연, 이강일), 사운드캠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운드 아트 공연 ‘제주-런던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가 오는 4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문화공간 양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제주를 국내·외에 알리고 해외 예술가와의 교류를 위해 기획됐으며 제주와 영국 런던의 연주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즉흥 공연이다.

웨더리포트는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를 활용한 예술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10월, 설치 장소의 주변 소리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오디오 스트리머를 문화공간 양에 설치했다.

이 장치는 로커스 소너스 소리지도 웹사이트에 연결돼 현재 거로마을의 소리를 전 세계에 생방송하고 있다.

사운드캠프는 영국 예술가 단체로 런던에 있는 스태브 힐 생태공원에서 다채로운 관객 참여 행사를 열고 24시간 웹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인 리베일을 진행한다.

공연은 문화공간 양에서 공연하는 웨더리포트와 스태브 힐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사운드 캠프 참여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제주와 런던에 있는 관객들이 함께 같은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다.

공연 1부에서는 문화공간 양에 설치된 스트리머와 리베일을 소개하고 해외 다른 지역의 방송도 감상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문화공간 양에서 연주하는 김지연씨와 스태브 힐 생태공원에서 연주하는 샘 바라이서 스미스, 맥스 바라이서 스미스의 즉흥 공연이 펼쳐진다.

스트리머로 전송되는 스태브 힐 생태공원의 소리와 함께 연주자들의 키보드·멜로디카·컴퓨터 연주 사이의 즉흥 음악이 관객들을 찾는다.

또 이강일씨가 제주와 런던 두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및 연주를 시각화해 제작한 데이터 비주얼 작품이 동시에 상영된다.

3부에서는 생방송되고 있는 제주의 소리와 이씨의 데이터 비주얼 작품이 어우러지는 김씨의 솔로 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urator.yang@gmail.com)로 가능하다.